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8월 13일(금) (윤력 7월 6일) Пятница 13 августа 2021г. № 31 (1194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사할린에는 이날은 큰 행사로 기념한다. 행사는 8월의 3번째 토요일에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행사가 연기된다고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 전했다. 아직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사할린주에는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제한돼 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행사는 500명 이상 한자리에 모인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주지사,  
사할린 기업가들 투자 촉구**

투자 협의회가 동력 및 가스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가들을 초대한다. 8월 13일(금)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투자사업에 따른 협의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 연결에 따른 절차의 효율성과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급유소 개발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가들에게는 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들을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1"  
제작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를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10일(화)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 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일곱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대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하기 시작하여 올해도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한다. 사할린동포와 한국의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이 달력은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사할린주,  
8월 11일 코로나19 상황**

8월 11일(수) 기준 코로나19 상황을 사할린주 정부가 발표했다. 1,943명이 치료 중이며, 이 중 669명이 요양소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사망자는 170명이다. 빈 병상은 396개가 남아있고, 하루 확진자 수는 108명, 하루 사망자는 4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총 15만5천451명으로 이 중 이날 스푸트닉 브이 접종자는 808명, 스푸트닉 라이트는 90명(외국인 12명)이다. 집단 면역률은 49.7%이다. 하루 2차 접종자는 162명으로 총 630명이다. 백신은 3만4천300회분이 남아있으며, 코로나19 완치자로서 항체 보유자가 3만 명으로 사할린주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4만1천425명의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백신 접종률은 39.6%이며,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55.8%, 우글레고르스크 53.3%, 토마리 49.5%, 아니와 30.5%, 유즈노쿠릴스크 31.5%, 오하 36.2%이다.

### 미슈스틴 총리 사할린 및 쿠릴열도 방문 결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7월 26일 - 27일 동안 사할린주 방문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전달한 가운데 내용은 교통 접근성 향상, 동력산업의 현대화, 기업 지원 조치, 의료계 개발에 대한 것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8월 15일까지 극동 항공사의 협약된 재정 유형을 러시아 연방 정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사할린에 오로라 항공사를 기반으로 하여 새 극동항공사가 설립되는데 이는 극동지역의 교통망을 향상시키고 승객들이 지역 간 항공편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쿠릴 지역에서 주택과 기업들의 가스화 정책이 주요 과제로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총리가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섬들에서 필요한 제반시설 구축과 전력 시설의 현대화에 있어 연방과 주 차원의 재정적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게 된다. 쿠릴 열도에서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 조치 및 특혜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기업들의 수익에 따른 세금과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 및 운송세를 면제할 계획이며 쿠릴에서 관세 보호구역 절차를 시행하고 의무보험료를 7.6% 인하할 계획이다. 쿠릴 지역 중앙병원을 위해서는 올해 러시아 연방 정부 예산의 예비자금을 배당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병원 장비 확보에 8천만 루블리가 책정된다.

### 러시아 탁구 국가대표팀, 도쿄 패럴림픽 사할린에서 준비

근골격 장애인으로 구성된 러시아 탁구 국가대표팀이 2020 도쿄 패럴림픽을 향해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대표 선수 9명을 포함한 20명의 탁구대표단이 일주일 전 사할린에 도착한 가운데 훈련 체제에 들어가 훈련을 유즈노사할린스크 배구 스포츠학교에서 잘 진행한다고 전해졌다. 탁구 대표팀은 러시아 최우수 탁구선수들로 러시아, 유럽,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메달을 딴 선수들로서 수년간 패럴림픽에도 출전했다. 이들 중에는 세계적 탁구선수인 유리 노즈드루노브가 있다. 탁구 대표팀은 일주일 더 사할린에 머문 후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을 향해 떠난다.

### 연초부터 450여 개의 쓰레기 매립지 처리

사할린주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지 처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450곳 이상의 불법 쓰레기 매립지가 처리되었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노글리키, 우글레고르스크,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티롭스코예, 네벨스크, 유즈노쿠릴스크, 토마리, 마카로브 등 10개 지방자치체에서도 발견된 모든 무단 쓰레기 매립지를 제거했다는 정보가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더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불법 쓰레기 매립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흙스크, 아니와, 돌린스크 지역 주변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에서 쓰레기 매립지의 수가 실제로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주내 지방자치체들에서 총 587곳의 불법 쓰레기 매립지가 발견되어 지난해부터 사할린주는 대규모 불법 쓰레기 매립지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활동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생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깨끗한 섬> 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사할린주에 2천 500곳의 불법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내 깨끗이 처리했다고 사할린주 정부가 밝혔다.

<b>새고려신문</b>	<h2 style="margin: 0;">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h2>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b>2021년 하반기</b>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b>91루블리 56코페이카</b> 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시민들의 삶에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

## '성공은 여러 번 실패의 결과다. 실패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

1년 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문화관광센터>시립 자치기관을 설립했다. 여기 관장으로 지 안드레이 수호비츠(35세)가 부임했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열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수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청년의 인상은 똑똑하고 사회적 기업정신을 잘 이해하는, 전망이 보이는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할린의 작은 도시 체호브에서 태어난 지 안드레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안드레이 위로는 형과 누나 있고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당시에 선박을 수리하는 작은 조선소에서 일했다. 안드레이가 13살 때 가족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했다.

어렸을 때부터 안드레이는 배낭여행, 생태관광(자연친화적 관광)을 좋아했고 음악과 스포츠를 즐겼다.

제1김나지아를 졸업한 그는 사할린국립대 '금융과 신용'학과에 입학했다. 안드레이는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한다. 그때 얻은 지식을 항상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그는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즐겁게 했다. 원래 교육에 대한 의욕이 큰 편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

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 사업가로서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개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번 돈, 전자기타를 판 돈을 모았다. 사촌형과 함께 했던 첫 사업은 젤 풍선 배달 사업이었다. 이벤트 행사를 위한 사업은 한때 잘 되어 갔었다. 그 이후 금융과 신용에 관한 상담(컨설팅), 유통을 비롯해 여러 사업과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인업과 병행해 안드레이는 항상 회사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였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경험, 예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험도 쌓았다. 그가 문화관광센터 관장으로 일하기 전에 4-5년간은 사할린국립대에서 경제전문가로 근무하였다.

안드레이는 개인 사업에서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실패들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공은 여러 번의 실패의 결과다. 다만 실패는 크지 않은 손해여야 한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그는 재무 지표가 좋은데도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고, 항상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한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후 직원을 더 신뢰하고 위탁해야 한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대표라면 혼자서 모든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다.

"혼자서 일을 다 하면 회사에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라고 안드레이는 여러 경험을 통해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

안드레이는 지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연수 과정도 받고, 꽤 많은 공부를 하였다. 재정 담당 이사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증도 따냈고, 자연친화적 관광에 대해 실용적인 기술만 알고 있는 그에게는 이론적인 면도 중요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관광 경영도 통신으로 배웠다. 안드레이에 따르면 그는 항상 관광, 여행, 생태관광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 생긴 시립 문화관광센터 관장 직위에 경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이에 참가하게 되었다. 여러 자격증도 있고, 경영 경험도 있고, 경제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후보 중 안드레이를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관광센터의 사업을 소개하자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관광객을 위한 제



반시설을 구축하고 생태 관광 코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 행사도 개최하고 시민들이 여러 생태 코스를 이용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공원 내, 그리고 도시 내 여러 걷기 코스를 만들어보았는데 공원 내 코스는 정말 잘 준비되었고, 시내 코스는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어요. 단점과 장애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조금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센터 기획으로 <우리는 건강한 민족(국가)> 연방 콩쿠르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요. 1만 보를 건강하게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걸 다들 아시잖아요. 이 생태 코스는 남녀, 어린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연령에 상관 없이 누

구나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 안드레이 관장이 설명하였다.

센터의 또 다른 큰 업무는 도시 관광서비스다. 관광객을 위한 도시 버스투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버스투어는 무료로 하고 있고, 가이드들의 설명은 아주 재미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나서 장기간 사는 사람도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다. 지 관장도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지역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센터에서 타 여행사, 문화기관, 박물관 등 전문가들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관광 관련 무료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다.

올해 사할린주가 관광지로 발전되도록 러시아의 규모가 큰 관광 협력업체가 사할린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센터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안드레이는 현재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개인 사업가로서는 활동을 단졌지만 가끔 전에 생겼던 단골 고객들이 여전히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전에 하는 사업은 다른 파트너가 이끌고 있지만 안드레이도 상담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다.

그는 사람에 관해서는 사람의 책임감, 진심,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미로는 체스(온라인)를 즐기고 과학

방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준박사 논문을 쓰는 중이라고 한다.

"논문 주제는 '관광 분야 기업체를 위한 사업 환경'인데 사실 준박사 과정을 사할린국립대에서 2013년에 마쳤는데 논문은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이 논문을 제가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 관장이 말했다.

안드레이는 모든 경험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시절 레스토랑에서 가수로서의 경험도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상대방과 만나서 사업 협상을 할 때 이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무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채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사실 두 딸의 아빠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의 삶은 바쁘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애들이 자라는 모습이 귀엽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교육에 신경도 많이 쓴다. 아내는 항상 '너 일만 잘 되었으면'이라는 말로 안드레이에게 든든한 지원을 한다고 했다.

필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상대방의 시야,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 진심이 담긴 예쁜 미소, 이런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훨씬 깨끗하고 빛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배수신 기자)

## 이모저모

### 7월 사할린주의 물가상승률 0.48%에 달해

6월 대비 7월에 사할린주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100.48%에 달했고 이에 비해 2020년 12월에는 102.32%였다. (2020년 7월에는 100.45%, 이에 비해 2019년 12월에는 102.60%였다) 한 달 만에 식품은 0.5% 가격이 올랐고, 비식품은 0.3%, 서비스는 0.8% 올랐다.

육류 제품은 7월에 칠면조 고기가 2.7%, 쇠고기 2.6%, 양갈비 1.7%, 닭다리 1.2% 가격이 올랐고 마카로니와 곡물류 중에서는 메밀이 6.6%, 세몰리나 2.2%, 귀리 및 통보리는 2.1%, 정제된 쌀은 1.4% 가격이 올랐다 과일 및 과채류에서는 비트가 16.1%, 토마토 8.1%, 감자 7.7%, 양파 7.3%, 양배추 6.6%, 생과 4.4%, 사과 1.7% 올랐고, 반면 생오이는 20.7%, 당근 0.6%, 포도, 바나나, 레몬, 오렌지, 배는 0.4 - 3.1% 가격이 하락했다. 밀가루는 2%, 해바라기유 1.5%, 설탕 1.1%, 달걀 0.4% 가격이 올랐다.

7월 비식품군에서는 학령기 아동복이 3.4%, 건축자재, 국산 중형 자동차, 담배제품은 2.9%, 이불 커버세트 2.4%, 컬러 티비 2.3%, 유아용 속옷 2%, 실크 원단 1.9%, 양말 및 스타킹류 1%, 디젤 연료 0.8%, 차량 휘발류AI-98은 0.7% 가격이 올랐고, 화장품 및 향수 품목 중에서는 모발 염색약, 면도 크림, 비누, 샤워젤, 액체 세제 및 세정제의 가격은 1.2% - 3.1% 가격이 올랐다.

조사된 서비스 종목에선 공공 서비스가 3.6% 오른 가운데 난방비 3.8%, 전기 3.6%, 온수 3.4%, 냉수 3.1%, 가스 1.9% 가격이 올랐다.

소비자 신용대출 이자는 2.8% 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변동으로 조건적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에도 변동이 있었다. 식품 세트에는 가장 자주 소비되는 식품 33개가 포함돼 있다.

2021년 7월 말 사할린주의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6972.09 루블리로 한 달 만에 1.9% 올랐고, 이에 비해 2020년 12월에는 10.9% 올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초식품 세트의 가격은 6757.27루블리고, 코르사코프는 6812.21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7410.14루블리, 오히는 7618.65루블리라고 사할린 통계청이 전했다.

### В июле инфляц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0,48%

В июл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июнем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 100,48%,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екабрем 2020 г. — 102,32% (в июле 2020 г. — 100,4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екабрем 2019 г. — 102,60%).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за месяц подорожали на 0,5%, 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 на 0,3%, услуги — на 0,8%.

В июле среди мясopодуlктов мясо индейки подорожало на 2,7%, печень говьяжья — на 2,6%, баранина на кости — на 1,7%, окорочка куриные — на 1,2%. Среди макаронных и крупяных изделий зафиксирован рос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на крупу гречневую — на 6,6%, крупу манную — на 2,2%, крупы овсяную и перловую — на 2,1%, рис шлифованный — на 1,4%. Прирост цен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плодo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ставил: на свёклу столовую — 16,1%, помидоры — 8,1%, картофель — 7,7%, лук репчатый — 7,3%, капусту белокочанную — 6,6%, зелень свежую — 4,4%, яблоки — 1,7%. Вместе с тем цены на огурцы свежие снизились на 20,7%, морковь — на 0,6%. Виноград, бананы, лимоны, апельсины, груши подешевели на 0,4-3,1%. Мука пшеничная подорожала на 2%, масло подсолнечное — на 1,5%, сахар-песок — на 1,1%, яйца куриные — на 0,4%.

В июле из 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подорожали: одежда для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 на 3,4%,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новые, табачные изделия — на 2,9%, белье постельное — на 2,4%, телевизоры цвет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 на 2,3%, белье для детей ясе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 на 2%, ткани шелковые — на 1,9%, чулочно-носочные изделия — на 1%,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 на 0,8%, бензин автомобильный марки АИ-98 — на 0,7%. Из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отме-

чалось повышение цен на краску для волос, пену для бритья, мыло туалетное, гель для душа, жидкие чистящие и моющие средства — на 1,2-3,1%.

Из наблюдаемых услуг рост цен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составил 3,6%, в том числе отопление подорожало на 3,8%,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 на 3,6%, водоснабжение горячее — на 3,4%, водоснабжение холодное — на 3,1%, газ сетевой — на 1,9%.

Стоимость условного (минимального)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асчете на месяц в средн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нце июля 2021 года составляла 6972,09 рубля, за месяц рост на 1,9%, к декабрю 2020 г. — на 10,9%. Стоимость наб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6757,27 рубля, Корсакове — 6812,21 рубля, Поронайске — 7410,14 рубля, Охе — 7618,65 руб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름 포토크로스에 11개 팀 참가

지난 일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여름 포토크로스' (주제와 시대적 범주에서 현대 사진 경연)가 개최된 가운데 11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인, 사진의 매력에 빠진 서민들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포토크로스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전과 사진 경연의 총집합이다. 경연의 출발은 '포베다' 종합기념박물관 홀에서 시작되었다. 박물관에서는 참가팀의 등록과 사진 촬영을 위한 5개 부문의 주제 선정이 이뤄졌다. 참가팀들은 5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로 사진을 찍어야 했다.

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는 러시아 사진작가협회 회원이며 '리스트' 사진 작업실 대표인 알렉산드르 가이워론의 강연이 조성됐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찍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찍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포토크로스의 결과가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발표된 가운데 팀 성적을 결산하고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3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농업 인구조사에 대한 필수 정보 47% 수집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지역에서 농업 인구조사 조사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수 인구조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45%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사할린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개인적 부차적 농업 인구는 29%, 주민 협동 원예업은 18%로 조사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총 8명의 조사자가 작업하는 가운데 베레즈냐키, 달네예, 노바야 제레브나 마을에서 개인적 부차적 농업 3,323개 대상, 비영리 원예농업이 527개 대상을 찾아다니며 조사해야 한다.

농업 단체, 농민 산업, 개인 농업은

러시아 통계청 사이트에서 웹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할린 지부 통계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조사자들은 테블릿을 이용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에는 재배 품목에 따른 밭의 면적과 다년생 과수목 재배 면적, 사육 농장의 가금류 마릿수에 대한 질문이 있다. 전체 정보는 은밀하게 통계 작업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피조사자들의 이름과 성은 밝히지 않으며 농경지 주소도 지역 코드로 표기한다. 사할린 통계청에 수집된 정보는 사할린주의 총괄적 결과물

얻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각 조사자들의 조사 할당량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480개 대상이다. 조사자들에게는 설문을 조사해야 하는 주소 목록이 있는데 이후 각 지방자치체마다 이러한 통계 자료로 공식적 종합 통계 정보가 형성되며, 각 지방 기관도 통계를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할린 통계청 농업 및 주변 자연환경 통계과 차장인 문 라리사가 말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했다고 시청 측이 전했다.

# '남북 대화 50년' 기념 디지털 사진 전시

## 서울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서 디지털 포스터 이용해 남북 대화 사진 전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누리집에서도 전시 사진 및 해당 회담에 대한 배경 설명 제공.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을 맞아 8월 9일부터 한 달간 서울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서 디지털 포스터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을 맞아 8월 9일부터 한 달간 서울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서 디지털 포스터를 이용해 남북 대화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 통일부)

한 달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등 4개 역사에서 디지털 포스터를 이용해 남북 대화 사진을 전시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1971년 8월 20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67회의 남북 대화 가운데 역사적 의미를 가진 회담을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고려해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방식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동 중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스터를 통한 전시를 시도한다.

서울역 29개, 시청역 22개, 종각역 24개, 종로3가역 30개 등 역사 안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판을 통해 1회당 10초간 전시 사진을 표출해, 아침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일 최소 257회 이상 게시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 -) '디지털 사진전' 띠 광고)에도 전시 사진을 게시하고 디지털 포스터에 모두 담기 어려운 전시 사진 및 해당 회담에 대한 배경 설명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50년간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남북 대화의 경험과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통일 미래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사할린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러시아 사할린주와의 교류협력 추진

충청남도도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승)이 관내 13세~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잊히고 있는 사할린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러시아 사할린주와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사할린 이주 동포가 알려주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역사 특강은 2009년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천안에 거주 중인 심창태 회장(천안 사할린 동포 한인회)이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역사와 생활상, 그리고 조국으로 영주 귀국하게 된 80년의 삶과 현재 사할린 교포들에게 처한 문제와 현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또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사업부의 김명환 연구원의 강의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한인의 남사할린 이주와 강제동원, 귀환 과정의 고난 등을 전해주었으며 한인의 사할린 이주 현황, 광복 이후 사할린 이주 동포들의 좌절된 귀환과 박노학의 활약, 한·러 수교를 통한 영주귀국 등 역사 사실에 대한 고증을 덧붙였다.

충청남도도는 4월 특강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산과 서천에서도 특강을 이어오가고, 이 밖에도 서천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할린 한인 사진전", 홍성의 지역극단과 연계한 "사할린 이주역사 스토리텔링" 공연 등도 진행했으며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도 지역 청소년을 위해 사할린 역사 특강을 매달 진행하고 있다.

참가 청소년은 "일제 강점기 사할린주로 강제 동원되어 돌아오지 못한 이주 동포들의 이야기를 직접 심창태 회장을 통해 들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남은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윤여승 관장은 "사할린 역사특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 한인회를 통한 청·소·년 대상 역사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사할린 이주 동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천안/CTN]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11개 팀이 모두 날씨가 안 좋았어도 주저하지 않고 가서 최대한 모든 과제를 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모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해냈다. 좋은 장면들이 많아서 이들 중 선정하기 어려웠다. 모든 참가자들이 최상으로 작업을 완수했다. 매회 포토코로스 참가자들의 작품들이 더 우수해지며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

다음 기회에는 자신의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참가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심사위원인 안드레이 모쉬코브가 소감을 전했다.

## В летнем фотокросс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 команд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летний фотокросс.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1 команд. Среди них учащиеся школ, студенты, работающая молодёжь и просто люди, увлечённые фотографией, сообщает ЦМИ.

Фотокросс — это симбиоз фотоконкурса, квеста и городского ориентирования. Точкой старта стал холл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там состоя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команд и выбор пяти случайных тем для фотографий. Командам предстояло за 5 часов сделать снимки на заданные темы.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состязани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отокросс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лекция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фотомастерской "Лист", членом союза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ом Гайвороном. Он рассказал ребятам, на что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при съёмке кадров, как их сделать интересными и креативными.

Итоги фотокросса озвучили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Их подвел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и выяв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по номинациям.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одиннадцать команд не побоялись ненастной погоды, пришли и отработали все

задания по-максимуму. Никто не сошел с дистанции и не сдался на полпути. Было много хороших кадров, очень трудно отбирать лучшие из них. Все участники отлично поработали. С каждым разом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фотокросса становятся лучше и интереснее. Надеюсь, что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будет ещё больше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довать и удивлять нас сво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член жюри Андрей Мошков.

## <아니와 질주> 철인 3종 경기 우승자 결정

8월 7일 사할린에서 <아니와 스프린트(질주)> 질주 구간에서 철인 3종 경기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기록적으로 120명 이상이 참가했다.

철인 3종 경기는 2018년부터 개최되어 국제적인 경기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 출발점에는 사할린 주민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방문객도 있었다.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인 선수권 경기와 단체 릴레이에서 승리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기 참가자들은 750m코스를 수영하여 넘고, 20km를 자전거 질주로 경쟁하며, 5km 코스 달리기 단계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철인 3종 경기는 정말 육체만 아니라 정신도 강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기로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빠르게 질주한 참가자는 예브게니 알레브로 결정되었다. 그는 첫 단계 경주인 수영에서부터 기운차게 출발하여 상대 선수들에게 그를 이길 만한 여지를 주지 않았다. 여성 중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안젤리 솔란주가 최고로 강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해온 가운데 그녀의 단란한 가족이(남편과 4명의 자녀) 스포츠 우먼인 그녀를 응원했다.

남자 릴레이(계주)에서 '파스토안노(언제나)'팀이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사할린의 곰들'팀과 '포지티브(긍정적)'팀이 뒤를 이었다. 남녀 혼성 계주에서는 '런 바이크(자전거 질주)'팀을 따라 잡을 팀이 없었고, 뒤를 이어 '네버 스타(절대 멈추지

마)'팀이 2위, '아니와'팀이 3위를 차지했다.

'수퍼스타'팀은 참가자들의 연령을 모두 합해 150이 넘어야 하는 '150+'부문에서 최고 우승자가 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행사 협찬이 제공하는 메달과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триатлона "Анива-спринт"

Триатлон на спринтерской дистанции "Анива-спринт" прошел 7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ортсменов — свыше 120.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с 2018 года и уже успели ст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Так, в стартах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но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из Аргентины и Австралии.

Любител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оспаривали победу в личном первенстве и командных эстафетах.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750 метров вплавь, сразиться в велогонке на 20 километров и завершить испытания пятикилометровым беговым этапом.

Триатл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дел сильнейших не только телом, но и духом людей. Это звание подтвердил самый быстрый участник гонки — Евгений Валиев. Взяв бодрый старт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гонки — плавании, — Евгений не оставил оппонентам шансов.

Среди женщин сильнейшей стала Энджели Соландж из Аргентины, она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спортсменку поддерживала ее дружная семья — муж и четверо детей.

В эстафете среди мужчин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а команда "Постоянно", оставив позади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ведей" и "Позитив". В смешанной эстафете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не было равных команде "Ран байк", вторыми стали "Невер стоп", а бронзу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Анива".

Лучшими в категории "150+", где сумма возрастов участников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50 лет, стала команда "Суперстар".

Призеров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от партне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читателям мира

Фонд Daesan выделил 180 миллионов вон (\$156 385) для поддержки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ообщили в фонд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3 литературных работ, 11 романов и 2 поэмы, были отобраны из 72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этого года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перев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издания».

Отобранные работы будут переведены на семь разных языков – англи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немецкий, испанский и вьетнамский.

Для переводов в этом году отобраны работы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ей, таких как Ким Сум, Ким Ён Су, Пак Ван Су, Ли Сун Ю, Чон Ын Ён и Хан Кан. К переводам наряду с ветеранами привлечены молодые переводчики.

«Мы определили сроки переводов в один год, начиная с сентября», — сказал газете The Korea Herald Ли Чжун Хва, главный менеджер фонда Daesan, добавив, что на некоторые переводы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о завершении переводов фонд свяжется с издательства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убликации работ и реализации их на рынке.

Одним из 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является московский писатель и художник, лауреат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Михаил Пак. **ИА РУСКОР**

##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презентовали в Дом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Москве

5 август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Дом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и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Кима М.И. «Судьба коре сарам.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Родословная».

Эта книга я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м книги «Культурный чиновник» Ким Моисея, изданной в 2015 году. В ней содержатся описа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ычаев, обрядов, пословиц, поговорок, крылатых выражений, отражающих менталитет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ниге есть родословная, идущая от его родителей. В издании на конкретном примере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даются интересные события, малоизвестные факты, отображающие реальную судьбу и сложную жизнь российского (советского) корейца — корё-сарам.

Ким Моисей Ирбемович – извест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в недавнем прошлом,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культурный» чиновник, посвятивший многие годы своей трудовой жизни культуре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ССР, а затем – вопрос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Минрегионе России. Человек незаурядный, человек неординарной судьбы, обладатель и популяризатор особенно важных знаний о культуре и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которые сохраняют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народа и сохраняют сам народ, его уникальное и неповторимое лицо, менталитет, этничность,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родной язык и т.д. от «бездушного катка»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пораций.

Пожалуй, наиболее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мироощущения коре сарам, корей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неписаных законов и правил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приходит после знакомства с такими темами брошюры как «вежливость по-корейски», «особ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понятия», «характерные явления», «корейские пословицы», «крылатые слова». В них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глубокие смыслы бытия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в услов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вынужд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казался оторванным от этн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о сохранил в себе непоколебимую волю к жизни, энтузиазм,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Фото: Эльза Бажора

трудолюбие и стремление к творчеству, созиданию и утвержд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Следуя этим смыслам и опираясь на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предков, корё-сарам постоянно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кружению свою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ь, прилежание, терпеливо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дежность, законопослушание и иные добродетел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завоевывали авторитет и уважени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Главное достоинство книги, на мой взгляд,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автор обращается к каждому из нас с призывом к созиданию, достижению гармонии духовного и телесного в себе, в социуме с окружающими людьми и с ее Величеством ПРИРОДОЙ.

**Сергей Кучинс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точник: ИА РУСКОР)

## Пхеньян снова появился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радарх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етили фотовыставку,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отражает возобновление контакт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ной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общ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а.

Фотовыста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случаю 20-лет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 Чен Ира и 10-летию его визита в сибирский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ы»,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отслеженном в Сеуле.

Ким Чен Ир, отец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руководи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о своей смерти в 2011 году.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включая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м Чон Ира, назвали визиты лидера в Россию «важными событиям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выдающийся вклад в продвиж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В заявлении, размещенном на веб-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поддерживают свои связ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политику и бизнес, и что связи продолжаю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будущем.

«Это твердая пози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шей страны развив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имеющие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и традиции, и это требование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добавил он.

Отмечены сигналы в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возобновляет дав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ную контакт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июн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правила своих дипломатов на подобную фотовыставку,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посольством Китая в Пхеньяне по случаю 2-й годовщины визита в страну президента Китая Си Цзиньпина. **ИА РУСКОР**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справиться с COVID-19 и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жизнь людей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и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жизнь людей. Выступая 9 августа на совещании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он назвал нынешние жестки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экстренным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ременно, в течение короткого периода».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приня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усилия для сдержи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и ускор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Президент напомнил, что планируется вакцинировать 36 млн человек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дной дозой до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с 18 по 22 сентября.

## В США принят закон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19 июля Пала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нгресса СШ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семей,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начало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в поддержку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ША, с их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нициатором данн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была член Пала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ническая кореянка Ён Ким.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в США проживают 2 млн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у 100 тыс. из них имеются родственник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йде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емей. По словам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Энтони Блинкена, Вашингтон работает над этим вопросом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еул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закон,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трудный путь. Аналогичные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лись нижней палатой Конгресса США и раньше,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Буша, Обамы и Трампа, но они не утверждались Сенатом. Реализации закона,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знач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могла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днако сейчас для его принятия довольно благоприятное время. По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линий связи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озобновили обсужде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ддержки Пхеньяну.

##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в РК могут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объявили,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могут привиться вакциной от COVID-19 на тех же условиях, что и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Иностранцы, оформившие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могут привиться по стандартной для всех процедуре.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записать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https://ncsvr.kdca.go.kr/>). Иностранцы, находящие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резиденты, не имеющие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а также те, кто освобождён от процедуры обяза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могут быть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При этом им достаточно предъявить паспорт.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не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легальность статуса таких иностранцев.

## Глава Samsung Ли Чжэ Ён будет освобождён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тбывает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коррупции, будет освобождён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 13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в 10 часов утра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810 заключённых, отбывающих наказание в 54 испра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реди них Ли Чжэ Ён. Ранее комиссия по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проверила 1.057 кандидатур н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был одобрен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Пак Пом Ге.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он заявил, что данный список был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ен, учитыва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вклад ряда заключённых в преодо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а также заполненность некоторых тюрем, что повышает рис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Ли Чжэ Ён был включён в число подлежащих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с учётом об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и в мире. Кроме того, во внимание принимались настро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и поведение Ли Чжэ Ёна. Ранее в январе суд приговорил его к 2,5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Он имеет право на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поскольку к концу июля отбыл 60% срока.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не может сразу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С момента исполнения наказания, по закону, он н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Однако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может освободить его от да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финансовых кругах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сказывались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Ли Чжэ Ёна в интересах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RKI)

##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внесла раско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ление младшей сестры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с прямыми намеками на нежелатель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невров внесло заметный раскол в политическую элиту Южной Кореи.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м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даже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дних и тех же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В итог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компромисс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маневров, но в сокращённом масштабе,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никого не удовлетворит, а создаст лишь новые проблемы.**

Когда 27 ию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ообщил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линий связи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то правящие круги, да и сам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стретило эту новость если и не с бурным ликованием, то уж точно с заметным энтузиазмом. Один за другим политики и близкие к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эксперты прогнозировали скорую новую межкорейскую оттепель, а там, возможно, и очередной саммит лидеров двух Корей, пусть даже и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конференции.

Однако уже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пять дней Сеулу пришлось крепко задуматься. Вечером 1 августа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а также,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курирует отношения Пхеньяна с РК и США, призвала Южную Корею отменить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10 августа совместны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По мнению Ким Ё Чжон, маневры союзников "серьёзно подрывают волю лидеро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сторон по возобновлению процесс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оверия" и "бросают тень на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на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КНДР будут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тем, проведет ли южная сторона в августе враждеб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и могут принять другие реши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Тут ж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разведка не исключила, что КНДР может пойти на различные провокации в случае учений, включая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Официальный Пекин также призвал Сеул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егативно повлиять на стабильность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Как это уже не раз бывало, в стремлении сохранит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очень разными странами Сеул оказался между двух огней, на этот раз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главный союзник Сеула в лице США уже давно раздражён и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пора по-настоящему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так как это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боеготовности войск союзник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в последние полтора года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лога для сокращения масштабов или отмены учений Сеул часто использовал фактор коронавируса, то теперь это стало сложно сделать: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в Вашингтон Мун Чжэ Ин получил от Джо Байдена неожиданный подарок -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артию вакцин на 5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епараты, как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вакцинации именно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Сеул поблагодарил, препараты эти почти все использовал, вакцинировав своих солдат, так что теперь трудно говорить про коронавирус.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ходит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торой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ном сделало особую ставку. После неожиданного разрыва отношений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хеньян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вдруг пошел на новое сближение, и тут снова испытание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правда, напрямую спровоцированное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общем, США требуют проводить учения, а КНДР пытается заставить Сеул отменить их, грозя последствиями. Что делать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Югу?

В ответе на этот вопрос мнения разделились.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оппозиция, которая всегда славилась своим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и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м настроем, однозначно потребовала проводить учения, н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 Пхеньян. Кроме того,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чтобы оно "поставило на место" и Китай, который, по версии партии, вмешивается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все неоднозначно.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 Сон Ён Гиль, который вообще-то славится настроем в польз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на этот раз занял жесткую по-

зицию, заявив, что "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согласно уже утвержденным планам". С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офиц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партии". Политика можно понять: помимо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зиции есть и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подталкивают к учениям. Требования Пхеньяна были озвучены 1 августа, когда все параметры учений были уже согласованы, а в Южную Корею стали прибывать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Сами учения должны стартовать 10 августа. Какие-то либо перемены или уж тем более отказ от учений означали бы, что Сеул просто "щелкнул каблуканы" и бросился выполнять то, что ему сказал Пхеньян.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все же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от США право на управление объединенными войск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лучае войны. Сейчас, если в Корее начнется война, то командование над ВС РК и контингентом США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американские генералы. Сеул уже давно просит предоставить ему большу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право на управление объединенными силами. Вашингтон вроде и не против, но управление войсками как РК, так и контингентом США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одновременно требует тренировок, то есть учений. А потому учения нужны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военным,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сво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Однако логик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ибкого подход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носа, а то и вообще отказа от учений ради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нашла немало своих сторонник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Юга. Именно с таких позиций высказались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директор местной разведки Пак Чи Вон и ещ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4 депутата парламента, которые подпис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РК.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тоже разделилась во мнениях почти поровну. Согласно проведенным накануне опросам, чуть более 50 процентов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проведение учений по графику, но не сильно отстали и те, кто согласился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ереноса маневров. Так посчитали более 45 проц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це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ситуацию, взвешивая все "за" и "против", и в итоге вечером 8 августа просоч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об итоговом подходе, который был подтвержден 9 августа утром.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учения пройдут в плановом порядке, в плановые сроки и согласн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му сценарию. То есть маневры будут носить характер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учений и пройдут в два этапа. В ходе первого этапа с 10 по 13 августа будет отработываться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сценарий, то есть действий по отражению разного рода атак, а с 16 по 26 августа - контратакующий сценарий, то есть подразумевающий, что союзники наносят ответный удар по агрессору. Однако все это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о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арианте, с минимальным привлечени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ил, только в форме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игр и с уведомлением об этом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несколькими днями ране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решили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вопрос об оказа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стым языком, 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Южная Корея, оказавшись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пытается через компромиссные решения не разозлить сразу обе стороны.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по плану, в согласованные ранее сроки, с утвержденным ранее сценарием, но при этом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иде и еще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оторая в поддержке, объективно говоря, нуждается.

Вопрос лишь в том, устроит ли такой вариант как США, так и КНДР. США,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давно упрекают Сеул, что тот идет на поводу у Пхеньяна в ущерб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альянса, не получая ничего взамен, тогда как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наращивать свои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арсенал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удя по предыдущим схожим ситуациям,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ервно реагирует на любые учения - хоть полные, хоть сокращённые. Хотя тут был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нятно, что Пхеньян поставил Сеул в очень неловкое положение, требуя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го - отменить учения за десять дней до их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чала.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все это чревато новым обострением ситуации, включая очередными запусками ракет КНДР и новым обрывом линий связи. Теперь остается ждать ответа Пхеньяна на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проведут учений, но в сокращённом виде и еще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9 августа 2021)

##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оможет выявить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индустрии региона

**Будущее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и тандемная работа.**

Туриндустр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ъединяет все субъекты отрасли: операторов, коллективные м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малый бизнес. Когда все сегменты этого «тандема»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отраслевой рынок растет, а регион — привлекает все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Об этом, а также о том, как Ежегодная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оможет 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отрасли в интервью рассказала и.о. министр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Пахолова.

**– Наталия Михайловна, расскажите,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ключе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 островах?**

– С 2019 года туриз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мы подходим к развитию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 регионе комплексно: создаем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гостиницы, благоустраиваем объекты показа, стремимся развивать новые сервисы для туристов и учимся все это грамотно продвигать. Мы стремимся делать акцент не только 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но и заботимся о появлении нов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 Как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разработке в области?**

– Сегодня осно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это макро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над несколькими проектами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кластеров: «Лагуна Буссе» на Сахалине, «Архипелаг Онекотан»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Итуруп» и «Южные Курилы». У каждого кластера свои задачи, акценты и приоритетные продукты.

**– В чем,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формула успеха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дукт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продавцом услуги до потребления его покупателем совпадал по ожиданиям. Формула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успешной, если турист всем доволен и хочет возвращаться в наш регион.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торой раз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ая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Какие номина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уризма курирует номинацию «Лучш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ри подноминации для трех основных сегментов отрасли: «Туроператоры», «Гостиницы»,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Ка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должны обладать потенциальные победители?**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сли мы говорим про индустрию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нимание обращаетс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Один из критериев для номинантов — не менее 3 лет успешной работы в регионе. Для туроператоров важное условие — регистрация в Еди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реестре туроператоров, для гостиниц — прохож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 конечно, очень важна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от туристов, ведь все это в итог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человек, посети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стался в восторге от наш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и сервиса.

**– Что да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обе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аяке»?**

– Это определенный знак качества, подтверждение заслуг компании, награда за труд и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подход к работе. С помощью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а затем и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мы выбираем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и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них всей области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чтобы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лечь еще больше благодарных туристов.

Напомним, заявки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уриндустрии области на участие в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tourism@sakhalin.gov.ru](mailto:tourism@sakhalin.gov.ru).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обыти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обытий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пройдет в селе Рож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на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частник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в районе реки Борисовк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те времена ее называли Хандаса-гава, повторят реальный бо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событии поучаствует около 4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 Ждем жителей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глашаем 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Хочется, чтобы 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посмотрело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Я могу 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Всех секретов раскрывать не буду, но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еще больше боеприпасов,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Сценари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 к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или на Сахалине 75 лет назад — 11-12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одеты в копии формы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На поле боя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санитары и военные журналисты. В бою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охолощ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стрелять светозвуковыми холостыми патронами. Это знаменитые винтовки и карабины Мосина, пистолеты-пулеметы Шпагина, пулеметы Максима и Дегтярева, японская винтовка Арисака.

– Отделение разведки встретится с соперником на северном берегу, где завяжется бой. На помощь нашим солдатам придёт стрелковое отделение. Вместе они займут северный берег реки. После подойдут основные силы. Затем Красная Армия двинется на юг, подойдет к ДОТам, переберется через ров,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Уже с 13 августа на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азвернется полевой лагерь и выставка образцов вое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фотографий и других артефактов тех лет. Ее организ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ройдет 14 августа. Нача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4:00. Посетить е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Зрител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 На Курилах увелич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на Итурупе запуст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Повысить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островов продукцией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урилы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ем Сахалин, зависят от поставок продукции. Появле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острова независимыми от погоды и условий навигации. Задачу по развитию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Это не только помогает бизнесу, но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в цело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Итуруп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брать около 130 тонн картофеля и капусты, а также не менее 30 тонн тепличных овощей. Сегодня в актив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нтинент» — 10 гектаров пахотной земли и 1,5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еплиц. В планах — увеличить площади в 10 и 3 раз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ж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обладает высо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газификации, что делает рентабельным работу тепличных хозяйств.

Куриль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уже приступило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ых овощехранилищ. Совокупный объем хранения составит 500 тонн овощей и 1 тысячу тонн мяса и рыбы.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острова и снизить риски,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в зимнее время из-за сложной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у Итурупа.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КФХ «Вкус природы»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а «Агросартап» и было признано победителем. Фермер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олучил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развит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а Итурупе.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молоч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птицеводство.

##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начали обучение для участия в форуме «ОстроВа»

**Обучение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стартовал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Участников ждет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 экспертами из Москвы и Екатеринбурга.**

Всего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объединит более 6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6 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службах аккредитации, протокола, сопровождении и других.

– Отдельно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нашим серебряным добровольцам. Это активисты в возрасте 55+. Опыт и молодость — это всегда очень хорошо и полезно. Я уверен, что обучение пойдет на пользу каждому из ребят. Волонтеры — наши самые главные помощники, без которых не может обойтись ни одна форумная площадка,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бучение волонтеров нацелено на практику, поэтому привычных лекций почти не будет.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тренинг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ессии и нетворкинг.

– Мы особенно смотрим н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навыки и определяем другие компетенции ребят, чтобы прокачать их. Перед обучением они заполняли анкету, где писали о том, в к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хотят работать. Но хочу и могу — это разные вещи. Итогом нашей программы, помимо развития личных качеств ребят, станет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обранный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 поделилась Виктория Дрючкова, эксперт обучения волонтер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обуч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днако есть и те, кто приехал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рибыли добровольцы из Казани, Самары,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и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 Когда мы объявляли набор добровольцев, то сообщали, что в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могут попасть тольк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днако мы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от ребят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Многие из них опытнейшие волонтер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на масштабных событиях страны. Конечно, мы не смогли им отказать. Ребята приехали за свой счет, они также сами оплачивают проживание. Эти вопросы мы закрыли только для местных ребят, остальные справляются своими силами, — рассказал рассказавшего координатора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Кристина Давыдова.

Хасан Озодов прибыл на Сахалин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уже был добровольцем на форуме «Остро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 Мне вс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крутая, поэтому я приехал в этот раз. Люди добрые и отзывчивые, коллектив волонтеров был классный. Мы отлично отработали, и я захотел снова окунуться в работу здесь,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Мне все это по душе, — рассказал Хасан Озодов.

Обучение добровольцев завершилось 11 августа, а уже 13 начнется форум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он соберет около 500 участ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эксперт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дели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строВа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экологии» и «ОстроВа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Помимо заняти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обширная экскурсион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 поездки по острову по программе треков,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прогулки по городам форума, вечер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берегу моря, тематические фестивали, выставк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орогу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Синегорском в этом году отсыпят щебнем, а в следующем — начнут асфальтировать

**Работы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рога принята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 1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Первый этап работ завершат уже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е участки дороги длиной 850 метров отсыпят щебнем. Кроме того, там покрасят пешеходные и мостовые ограждения и установят урны на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ках. В районе села Санаторное восстановят откос насыпи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Полностью щебеночное покрытие дороги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о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Необходим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этой работы — 4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екущими правками в законе о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спективе —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трассы. Его планируют начать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анее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проект 1 этап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лина участка — 7,9 километра.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 разработку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второго отрезка трассы. В рамках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предлага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обустроить тротуары и дренажную систему, построить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и установить освещ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держанию асфальтового отрезка дороги длиной 18 километров.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на нем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оврежденных участков, нанесена разметка, производится окос полосы отвода.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верить движение автобусов в Березняках

**Жительница Березняков Татьяна пожаловалась, что поездка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тала головной болью для сельчан. Переполненные автобусы проезжают мимо остановок.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и анализ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на маршруте.**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возчик выпустит автобусы большей вместимости. Также пассажиров просят сообщать о некачественно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услуг в областной минтранс.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дату, время, место события 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автобуса. Обращение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ли на портал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и Березняками сегодня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тремя маршрутами. Автобус №252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Старорусского каждый день совершает три утренних рейса и один вечерний.

Также через село проходят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е автобусные маршруты №112 и 505. На маршруте 112 ежедневно работают 14 автобусов вместимостью от 16 до 30 пассажиров с интервалом движения 20 минут. По маршруту 505 рейсы выполняют автобусы вместимостью 35 мест. В будние дни осуществляет 14 рейсов, по субботам — 12,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 10 рейс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стровные ученые настаивают на увеличении допустимых объемов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лосося в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дзоне

Рыболовец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освоили весь первоначально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й объем добычи горбуши – 1,2 тысячи тонн. Однако, по информации СахНИРО, реальные подходы рыбы к островным берегам оказалис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прогнозируемы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увеличить допустимые объемы вылова горбуши и возобновить путину 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Обсужде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состоялось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 Нами подготовлена корректировка допустимых объемов вылова горбуши в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дзоне в сторону увеличения. Она должна пройт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цедуры в Москве, – рассказал Николай Колпа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ФГБНУ «ВНИРО» («СахНИРО»).

– Мы приостановили путину 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когда допустимый объем вылова оказался полностью освоен.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науки – нерестилища ряда сахалинских рек заполнены уже боле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ы ждем утвержденные науко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ъемы вылова рыбы. Рассчитываем получить их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ле этого комиссия сможет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омысла,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начался 30 июля и должен был продлиться до 31 август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НИРО, введение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проходных дней,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добыча рыбы запрещена, является техническим решением.

– Оперативно сменилась обстановка. Рыбы очень мног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Сахалине. Понятно, что не везд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подходы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ие. Поэтому введение проходных дней является необъективным решением, – добави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олучают лучш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пита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ввели номинацию «Лидер индустр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Также на масштабном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се выберут «Лидера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развитие потенциала отраслей сырьевого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В фокусе внимания –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оддержку и поощрение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расли призвана ежегодная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О новой номинации,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разнообразии островной кухни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расскажите, к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звиваю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184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в хлебопекарной, кондитерской, мясной, молочной отраслях, производстве пива, без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Именно они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ставку жителям основн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Кром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нейки, эти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т над новыми видами товаров. Ежегодно порядка 140 нов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ции выпускается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рын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 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н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К примеру, молокозавод в Поронайске наладил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роженого, которое не производили в области более 20 лет. Сахалинская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ая фабрика постро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цех на действующем предприятии, наладив выпуск сырокопченых и сыровяленых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екарни – только за 2020 год введено в действие 14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выпускают хлеб и снабжаю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хлебобулочными изделиями.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также открываю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цеха. К примеру, ООО «Пекарь» в Ногликах ввел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й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цех, где выпускаются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деликатесы и полуфабрикаты из мяса. Покупатели уж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одукцию за вкус, свежесть и ценовую доступность.

Также в регионе впервые открылся цех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комбикорм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Э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и полноц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орма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 свиней,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 птицы.

Среди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приятий, продукция которых выходит с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хочу отметить птицефабрику «Островную», где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х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яса птицы. Та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луч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частичное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 Расскажите о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

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которые в этом году курирует ваше министерство?

–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едложило две номинации на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Лидер индустр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Лидер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едприятий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 данная категория участвует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уже второй год. Конкурс по номина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предприятиям общепита, пройдет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 В чем особенность новой номинации и почему появи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ее появления?

– В этой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работают порядка 900 предприятий – бары, рестораны, закусоч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и школьные столовые. Этот сегмент сейчас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а в ходе конкурса жители смогут сами оценить, где наилучшая культура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овара и разнообразная кухня. Благо, в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можно отведать и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и сербские и другие блюда – каждый может выбрать кухню по вкусу. Да и посещаемость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растет.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видеть оценку именно этой сферы, ведь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стиму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каких-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слуг, а также гла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 Что даст побе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аяк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этих номинаций?

– Конеч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престиж. Получить первое место и кубок из рук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люс, если предприяти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о всем показателям,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его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ила признание у жителей. Этот факт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ь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купателей. Поэтому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это очень престижная премия.

###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поддержку новы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ят около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получат победители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Агростартап». Это курильское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ФХ) и сахалински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развитием ягодоводства, овощеводства,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и доступн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не только круп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но и небольш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позволяет нам определить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и оказать им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Эти средства помогу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стать на ноги, закуп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расшир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получим более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местной недорогой продукци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Агростартап» было подано 16 заявок.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4 участника. В их числе – КФХ «Вкус природ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е в этом году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Хозяйство намерено заниматься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ом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м.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а предприятие построит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е помещение для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поголовья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молоч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планах – обеспечи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Итуруп.

Кроме того, гранты на развитие своего дела получат сразу 3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Так,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Валентина Сурина планирует заниматься выращиванием ягодных культур. Уже куплен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и установлены тепл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Григорий Кожевников и Григорий Котенев планируют развивать сво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е фермы с разведением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молочных пород в Тымовском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важно созда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ед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у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но и у начина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гиона было желание работать и развиваться, – подчеркну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м,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а «Агростартап»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спецтехнику. Также деньги можно потратить на разработку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строительные 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помещений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хранения и переработк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животных, птицы, рыболов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Отбор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Агростартап»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и поддержк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В 2020 году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или 8 островных фермер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занялись овощеводство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우리말로 깨닫다]

##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해의 빛은 여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겨울에는 햇빛이 반갑고, 여름에는 햇빛이 싫을 수 있습니다. 햇빛은 언제 제일 아름답냐는 질문에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모든 빛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부딪고, 그 사이로 스미듯 새어나오는 빛은 왠지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어둠한 숲길에 한 줄기, 두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빛 따라 내 앞 길도 밝아집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해와 관련이 있는 말로는 햇빛, 햇살, 해님, 햇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빛은 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은 해가 세상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에서 나온 말로는 '비추다'가 있습니다. 즉 비추다의 어원은 빛입니다. '비추다'는 위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인공적인 빛은 모든 방향에서 비추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해는 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비춥니다. 아래서 보는 느낌으로는 '비치다'가 있습니다. 비치다의 어원 역시 빛입니다. 햇빛이 나뭇잎이나 얇은 천 사이에 스며들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빛을 남깁니다. 비치는 것입니다.

'햇살'은 빛의 줄기라는 느낌입니다. 나무의 줄기처럼, 그리고 빗줄기처럼 죽죽 뻗는 모습입니다. 곧은 느낌이지요. 우산의 살도 같은 느낌이지요. 자전거 바퀴에도 살이 있습니다. 옛 부채에도 대나무로 만든 살이 있었습니다. 살은 그런 느낌입니다. 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화살입니다. '손살같이'라는 표현에도 화살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화살이 제일 빠른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슥슥'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화살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햇살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화살이 아니라 웃음 짓게 하는 빛을 봅니다.

'해님'은 자주 '햇님'으로 쓰게 되는 말입니다. '-님'은 접미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서 사이시옷은 어근 사이에 들어갑니다. 해님을 [해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님'이 접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해님]이라는 발음이 익숙합니다. 해님은 달님, 별님, 하느님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천체에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님, 달님, 별님은 모두 친근하고 다정스러운 느낌입니다. 아마 '하느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종교에서 가져다 쓰기 전까지는 그저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이 다정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해님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가깝고 다정함을 느낍니다.

'별'은 온도입니다. 땀 뻘뻘 흘리게 하는 느낌보다는 추운 겨울 담장 밑으로 웅기종기 모인 아이들에게 비추는 온기의 느낌입니다. 별이라는 말이 쓰이는 단어로는 '불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별의 온도에서는 뜨거움이 확 느껴집니다. 햇별과는 다른 온도입니다. 햇별이라고 하면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찬바람으로도 날리지 못하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에게 햇별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햇별은 두텁고 무거운 외투를 저절로 벗게 합니다. 왠지 기분 좋은 웃음이 납니다. 달리 말해 햇별은 무겁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나뭇잎 사이를 비추는 빛줄기를 일본어에서는 코모레비[木漏れ日]라고 합니다. 짙은 빛이 아니라 나무 사이를 스며들며 비추는 빛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앞의 푸름을 더욱 푸르게 밝히는 빛. 빛은 햇살이 됩니다. 여름에는 햇빛 비추는 숲길에서 나뭇가지와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고맙고, 겨울에는 마음마저 녹이는 별이 고맙습니다. 해가 빛이 되고 온기가 됩니다. 우리를 밝게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2024년 무렵 유즈노사할린스크 부유해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의 경제개발국이 2022년 - 2024년까지 사할린 중심지의 사회경제개발 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가을에 향후 3년간 예산 책정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2019년(20만8,000명)보다 적은 20만7,28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2024년 무렵에는 21만1,488명의 주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출생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이 이 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2020년에 출생률을 보면 2019년에는 2,773명에서 2020년에는 2,787명까지 증가했고 사망률은 2019년 1천906명에서 2020년 2천111명 증가했다. 2024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2913명이 출생하고, 사망자는 1903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주요 경제사업 종목에 따라 서비스, 취업, 현재 생산제품 출하량이 1,326억 루블리가 되어야 하며, 2024년에는 1,510억 루블리로 증가해야 하는데 광물 채취가 사할린 경제를 계속 견인할 것으로 본다.

건설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2021년 건설비용은 403억 루블리에 달하고, 2022년에는 631억 루블리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609억 루블리로 감소

하고, 2024년에는 751억 루블리까지 새로이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2021년에 25만2900m<sup>2</sup>를 건설하고, 2022년에는 45만7746 m<sup>2</sup>, 2023년에는 43만4121 m<sup>2</sup>, 2024년에는 48만4201 m<sup>2</sup>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은 2024년까지 90만m<sup>2</sup>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매 거래량도 2020년에는 1천059억 루블리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1천233억 루블리까지 증가하며, 주요 자금으로서 투자금도 2021년에는 660억 루블리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778억 루블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기관들에서는 2024년쯤 10만 527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상승해 2021년에는 10만 4천168루블리, 2022년에는 11만344 루블리, 2023년에는 11만5천578 루블리, 2024년에는 12만619 루블리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후 석유 및 가스 채취 분야의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월평균 58만2천400 루블리를 받게 되고 서비스 업종 분야는 저조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 분야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만3천202루블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안산에 계시는 조금옥님께 드리는 축하문



팔순을 맞이하시는 우리 어머니·할머니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편안한 여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딸 · 사위들,  
손자 · 손녀들, 증손자녀

### Любимая мамочка и бабушка!

В День твоего 80-летия прими наше ПРИЗНАНИЕ В ЛЮБВИ!  
Мама, ты лучшая на Земле, ты для нас светлее солнечного дня...

Мы тебя очень любим, с каждым годом больше чувствуем - какое счастье оставаться твоими детьми и обращаться к тебе «МАМА».

Здоровья, здоровья и здоровья,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И пусть тебя радуют мелодия весны, солнце солнечное летом, яркие краски осени, сказочный снежок с морозцем зимой и умиляют твои милые правнуки и правнучки, лучики твоей жизни. Мы будем рядом, постараемся дарить тебе приятные мгновения.

Твои дочери и зятья, внуки и правнуки

Реклам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